

# 남북통일 발원 부처님 진신사리 공개

### 태종사 한국·스리랑카 수교 31주년 기념법회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지인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가 한국과 스리랑카의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스리랑카에서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공개했다.

특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대승정 소비타 스님이 1983년 남북통일을 기념해 태종사에 기증한 것이다. 8월 13일 경내에서 31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태종사는 소비타 대승정을 초청 스리랑카와의 수교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한국 내에 알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소비타 스님, 조실 도성 스님 등을 비롯한 대덕 스님의 탁발에 공양물을 넣는 테라와다 고유의 탁발의식 시연을 시작으로 봉안 역사 소개, 환영사 및 인사말, 스리랑카 소비타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는 삼귀의와 5계사 조실 도성 스님과 신도들의 팔리어로 펼쳐졌다. 이에 소비타 스님은 "31년 전 태종사에 국보급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봉안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도성 스님을 비롯한 한국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더불어 좋은 기운을 불러 넣어주신 덕분에 오늘과 같은 특별 법회가 봉행 될 수 있었다"고 회답했다.

이어 소비타 스님은 "어떤 종파이든 불교의 근본은 하나이다. 한국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불교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수행에 정진하길 바란다"며 한국과 스리랑카의 교류를 당부했다. 이어 대덕 스님들을 선두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친견하는 500여 사부대중의 행렬이 이어졌다. 또한 소비타 스님은 대중에게 성수를 직접 뿌리며 불자임을 증명하는 마정수기를 집전하기도 했다.

### 소비타 대승정 초청 법회 "문화 교류하며 수행정진하길"

한편 태종사는 1983년 조실 도성 스님의 서원으로 스리랑카에 있었던 국보급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가 봉안됐다. 당시 조실 도성 스님은 부산의 관광 명소인 태종대가 삼국시대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발원했던 역사적인 유적지임과 동시에 분단과 아픔을 극복하려 했던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태종사를 분단국가인 한국 평화의 발원지로 만들고자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 봉안을 추진했다. 그러던 중 도성 스님은 스리랑카 고찰 스리나가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부산 태종사가 한국과 스리랑카의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8월 13일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공개했다. 사진은 탁발시연중인 소비타 스님(사진 맨 오른쪽)

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고 스리랑카 국무장관을 통해 스리랑카가 주지였던 소비타 스님에게 한국 태종사에서 진신사리 봉안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타 스님은 한국의 분단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1983년 직접 태종사를 방문해 진신사리를 봉안하며 남북통일을 발원했다. 반면 보리수는 스리랑카 보리사 팔레가마 여나라트나 스님이 같은 해인 1983년도에 기증한 것이다.

태종사는 "이번 특별 법회를 통해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라 여겨지는 보리수와 진신사리를 공개하고 스리랑카 큰 스님을 모셔 한국 신도들에게 뜻 깊은 아난법석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가를 초월하는 것임을 한국·스

리랑카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했다"며 이번 특별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태종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4세기 인도 카랑가국에서 공주 헤마말라와 부마 단타 쿠말라에 의해 스리랑카에 봉정된 것으로 스리랑카 국보급 진신사리로 여겨진다. 또한 이번 법회에 초청된 소비타 스님은 스리랑카의 부루나존자로 여겨지는 인물로 수바드라라마대학 부총장, 국가 승가위원회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조실 도성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스님으로서 2003년 '삼분다사사나 조피까'라는 칭호를 스리랑카 국립 승가위원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 자비 실천 방생으로 평화 기원

### 쌍계총림 쌍계사 자비방생 대법회 봉행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와 본말사암연합회(회장 해문)가 세계평화·남북통일·민족화합 기원이라는 주제로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8월 12일 하동 섬진강변 야영장에서 봉행된 이번 대법회에서는 쌍계사 합창단 공연 등 식전 행사 이후 내빈들의 헌화와 축사가 이어졌다.

본말사암주지연합회 회장 해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불교의 자비는 모든 생명을 귀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상이며 방생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방생의 의의를



쌍계사와 본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자비방생 대법회가 섬진강변에서 열렸다.

밝혔다.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은 이어진 특별법회에서 "섬진강 상에 뜬 한 그루의 나무가 두 언덕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유히 행한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곧 흘러가서 갓 없는 대해(大海) 깊고 깊은 곳에 이르도다"며

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법요식 이후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섬진강변에서 잉어 치어 1만 마리를 방생하며 남북민족 화합 기원과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 건립한다

### 8월 10일 기공식 사부대중 300여 명 동참

대구 옥포 용연사(주지 활종)가 8월 10일 문화관 유정당 기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기관장, 단체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용연사 회주 성문 스님은 "비술산 자락에 위치한 신라천년고찰 용연사는 대구지역에 유일한 부처님 진

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는 도량이다. 사명유정, 인각대사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다. 사부대중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포교와 전법을 위한 수행공간을 위해 문화관 건립불사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은 1층은



대구 옥포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 기공식 장면

최신 시설을 갖춘 공양실과 2층은 참선수행과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대규모 집회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2015년 6월 준공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 8월 13일~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9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8월13~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다.

제9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8월 13일~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초등부 16개팀과 중등부 7개팀 등 총 23개 팀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구 황금사자(A)팀이 우승컵을 거머쥐었으며 중등부 우승은 포항 슈퍼사이언스에게 돌아

갔다. 황금사자(A)팀은 8월 14일 위덕대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부산 FC를 2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중등부 경기에서는 총 7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기를 펼친 결과 포항 슈퍼사이언스가 대전 금강FC를 5대 2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이번 대회 페어플레이상은 전라 사천왕팀, 단합상은 경주 천마팀, 응원상은 금강FC팀, 봉사상은 포항 슈퍼사이언스팀, 예결상은 안강FC팀, 질서상은 경산FC팀이 각각 차지했다.

폐막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세상이나 다 있다. 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이겼다고 해서 우쭐떨 일도 아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성동이 풋살대회에 참여한 김영진 학생은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순교 학생은 "평소와 연습한 실력으로 경기에 뛰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내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의지를 전했다.

# 농민중 급식시설 현대화

### 8월 14일 준공 준공식

조계종 종립 농민중학교가 학생식당을 증축하고 시설을 현대화했다. 학교법인 농민학원은 8월 14일 농민중학교 학생식당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자현 스님과 전 이사장 향적 스님, 농민중학교 교장 이용 1선,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민중학교는 올해 1월부터 1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3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단층 학생식당을 지상 2층, 연면적 630여 제곱미터로 증축하고, 조리실 등 급식시설도 현대화했다.

이 공사가 그동안 교실에서 급식을 하던 농민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오는 2학기부터는 현대화된 식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수진 스님, 동명대에 장학금 전달

###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발전기금 3천 6백만원을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쾌척했다.

수진 스님은 8월 7일 동명대학교 대학본부 경영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설동근 동명대 총장, 장재진 불교문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향후 인

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동명대학교는 수진 스님이 기부한 보시금으로 장학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진력할 계획이다.

한편 수진 스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동명대학교에 천만원 기부물, 2013년에는 2억을 전달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 사하구청에 쌀 108포를 전달하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동명대에 3천 6백만원을 기부했다.

는 등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 관음사, 전통 다비의식 백중 회향

### 우란분절 특별법회 및 연화대 다비식 봉행

부산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가 우란분절을 맞이하여 특별법회 및 연화대 다비식을 8월 10일에 봉행했다. 관음사는 지난해부터 조상 영가 천도 를 위한 7재 회향을 전통 다비식 형태

로 진행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음사는 "스님들의 전통 다비식을 일반 불자들의 조상 영가 천도에도 응용함에 따라 더욱더 여법하고 정성스럽게 조상님 천도를 하고

자 한다"며 연화대 다비식의 의미를 밝혔다. 주지 지현 스님은 연화대 다비식에 앞서 신도들에게 "오늘은 우리를 있게 해 준 조상님과의 인연을 사랑과 감사로 회향하는 날"이라며 백중 회향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날 7재 회향식에 참석한 700여 신도들은 위패 다비식을 통해 조상의 왕생극락과 평안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전임

#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